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

이 혜 은 · 윤 성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원)

1. 들어가면서

최근 일본은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이나 식료품의 국내 시장 축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세계 식품시장은 신흥국의 경제발전 등과 더불어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을 제외한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340조 엔으로, 2020년에는 2배인 68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는 2009년 82조 엔에서 2020년 229조 엔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액을 현재 상황보다 배수 이상의 규모인 1조 엔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출확대정책을 강화한다고 공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산물수출 현황과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 수출정책 관련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본고는 本田伸彰의 "農産物輸出の現状と課題"(2014)와 農林水産省의 "農産物の輸出に関する資料"(2014)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 농산물 수출 현황

2.1. 수출의 개황

일본의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497억 엔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0.3% 감소하였다.[1] 수출액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 72.8%, 북미 16.5%, 유럽 5.9%이었으며, 국가별로는 홍콩 21.9%, 미국 15.3%, 대만 13.6%, 중국 9.0%, 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농림수산물의 수출상대국·지역(상위 10개국·지역, 2012년)

순위	국가·지역명	TPP	수출액(억 엔)	구성비(%)	주요수출품목(억 엔)
1	홍콩		986	21.9	진주(112), 건조해삼(93), 담배(48), 돈피(36), 밀가루(33)
2	미국	O	688	15.3	방어(69), 가리비(58), 알코올음료(46), 소스혼합조미료(46), 진주(31)
3	대만		610	13.6	담배(172), 산호(41), 소스혼합조미료(35), 사과(27), 알코올음료(23)
4	중국		406	9.0	가리비(50), 연어·송어(32), 청량음료수(23), 채종용 종자 등(21), 오징어(21)
5	한국		350	7.8	알코올음료(36), 소스혼합조미료(20), 명태(16), 도미(16), 담배(14)
6	태국		265	5.9	가다랑어·참치류(77), 돈피(23), 고등어(21), 연어·송어(15), 소스혼합조미료(12)
7	베트남	O	215	4.8	정원수 등(43), 오징어(26), 고등어(17), 가리비(15), 돈피(15)
8	싱가포르	O	145	3.2	알코올음료(12), 밀가루(9), 소스혼합조미료(9), 녹차(8), 담배(7)
9	호주	O	65	1.4	소스혼합조미료(11), 청량음료수(7), 가리비(7), 알코올음료(5), 간장(4)
10	필리핀		56	1.2	제재가공재(11), 고등어(8), 소스혼합조미료(4), 가다랑어·참치류(3), 과자(쌀과자 제외)(3)
	합계		4497	100.0	담배(249), 알코올음료(207), 소스혼합조미료(195), 가리비(189), 진주(165)

주: 합계는 모든 수출처를 포함한 수치. TPP란의 'O'는 2013년 12월 기준 TPP교섭참가국을 나타냄.
자료: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 確定値」 (2013년 3월 25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림수산물 각각의 수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 59.6%, 임산물 2.6%, 수산물이 37.8%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총액 2,680억 엔의 내역 가운데 가공식품 1,305억 엔, 축산품 295억 엔, 곡물 196억 엔, 채소·과일 등이 133억 엔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수출액이 많은 순서대로 담배, 알코올음료, 소스혼합조미료, 가리비, 진주, 가다랑어·참치류, 청량음료, 건조해삼, 돈피, 과자, 파종용 종자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비율 가운데 많은 품목은 유통하기 용이하고 신선식품과 비교

1)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 (平成24年) 確定値」 (2013년 3월 25일)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kyo_12.pdf).

하여 수입국의 검역을 통하기 쉬운 것 등이다.[2)]

한편, 쌀이나 채소 등 일반적으로 농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하여 최근 수출 동향을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2012년에는 구제역 발생에 의해 중지되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어[3)] 쇠고기 수출액을 전년부터 크게 늘리고 있다.

표 2 주요 농산물 수출량과 상대국·지역의 변화(2010~2012년)

품목	연도	수출량	수출액	단가(注)(엔/kg)	상위 상대3국 · 지역
쇠고기	2010	541,045kg	34.0억 엔	6,279	베트남, 홍콩, 마카오
	2011	570,417kg	34.6억 엔	6,068	캄보디아, 홍콩, 마카오
	2012	863,428kg	50.6억 엔	5,865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쌀 (원조미 제외)	2010	1,898t	6.9억 엔	364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1	2,129t	6.8억 엔	321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2	2,202t	7.3억 엔	330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과	2010	21,075t	64.1억 엔	304	대만, 홍콩, 중국
	2011	18,205t	65.0억 엔	357	대만, 홍콩, 중국
	2012	9,107t	33.1억 엔	364	대만, 홍콩, 태국
딸기	2010	101,830kg	1.9억 엔	1,820	홍콩, 대만, 싱가포르
	2011	95,253kg	1.8억 엔	1,854	홍콩, 대만, 싱가포르
	2012	94,644kg	1.8억 엔	1,919	홍콩, 대만, 싱가포르
양배추 (싹양배추 제외)	2010	196,510kg	2,542만 엔	129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1	187,024kg	1,940만 엔	104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2	278,236kg	2,654만 엔	95	홍콩, 싱가포르, 대만
참마 등	2010	5,334t	20.0억 엔	374	대만, 미국, 싱가포르
	2011	5,035t	14.6억 엔	291	대만, 미국, 싱가포르
	2012	4,289t	17.5억 엔	409	대만, 미국, 싱가포르
농산물 합계 (임수산물 제외)	2010	–	2,865억 엔	–	홍콩, 대만, 미국
	2011	–	2,652억 엔	–	홍콩, 대만, 미국
	2012	–	2,680억 엔	–	대만, 홍콩, 미국
농림수산물 합계	2010	–	4,920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2011	–	4,511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2012	–	4,497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주: 단위는 시장단가 등이 아닌 단순하게 수출액을 수출량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각 연도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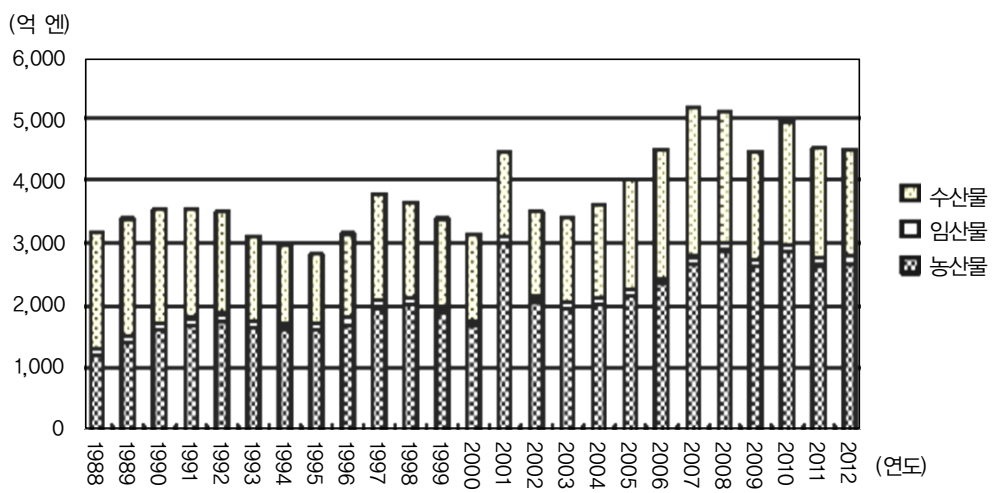
2) "農産物輸出 食用、農業産出額の0.2% 過大な期待は禁物". 『日本農業新聞』 2012.12.15.; 長谷川直行. "今なぜ農林水産物·食品輸出か?—輸出を巡る状況とジェトロの支援". 『農家の友』 64(10), 2012.10, pp.20–23.

3) 農林水産省.「プレスリリース 米国向け牛肉の輸出再開について」 (2012년 8월 3일)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20803.html).

2.2. 수출액 변화

<그림 1>은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액은 2000년경부터 증가 경향에 있었지만, 2008년의 리먼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엔고 현상 및 2011년 3월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의하여 최근에는 5,000억 엔 전후로 침체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액 변화(1988~2012년)



자료: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각 연도 확정치 등을 바탕으로 작성.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식물검역에 대한 대응이나 거래업자 선정, 현지에서의 판로개척이나 판촉 활동 등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4] 또한 이웃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일본이 목표로 하는 수출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도 최근 수출액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품질은 종래와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일본산 농산물의 가격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으로는 '청주'(日本酒)나 '녹차' 등을 들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고가격대 상품의 인기가 많으며, 청주는 상위 수출국인

4) 下渡敏治.“Ⅲ.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 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 『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2013, pp.51-54.
5) “九州の「農」力4 アジア展開 輸出課題山積み”. 『朝日新聞』(西部本社版) 2013.1.10.; 下渡敏治. “今や待ったなし農産物輸出戦略の構築”. 『AFC フォーラム』 58(10), 2011.1, pp.3-6.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다이긴죠(大吟醸), 긴죠(吟醸), 쥰마이슈(純米酒)와 같은 고품질 주류의 인기가 고조되고 있다. 녹차도 건강을 위한 목적이나 일식식당의 증가에 따라 미국 등에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6]

2.3. 목표액 변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자주 농림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목표액을 제시하여 왔다.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 2006년 '21세기 신농업행정 2006'[7]에서는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을 2009년에 6,000억 엔으로 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제1차 정권 시 아베 총리는 제165회 국회 연설(2006년 9월 29일)[8]에서 "일본산 품목의 수출을 2013년까지 1조엔 규모로 한다"고 표명하고, 2007년 '21세기 신농업행정 2007'[9]에도 반영하였다.

2010년 3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책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10]에서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을 1조엔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정권교체 후, 재취임한 아베 총리는 경제 재생을 위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을 1조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재차 표명하였다. 동 목표액은 2013년 6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성장전략 '일본 재흥 전략-JAPAN is BACK'[11], 정부의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에 결정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계획'[12]에도 제시되어 있다.

6) 日本貿易振興機構. "総論 2012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と輸出促進への取組み". 『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3』 2013, pp.2-22; 長谷川直行. "日本食品の輸出」日本酒、日本茶が伸長". 『ジェトロセンサー』 63(746), 2013.1, pp.80-81.
7) 農林水産省. 「21世紀新農政2006」 (平成18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6.pdf).
8) 第165回国会衆議院会議録第3号 平成18年9月29日 p.2.
9) 農林水産省. 「21世紀新農政2007」 (平成19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7.pdf).
10) 農林水産省.「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平成22年3月30日 閣議決定) (http://www.maff.go.jp/j/keikaku/k_aratana/pdf/kihon_keikaku_22.pdf).
11) 首相官邸.「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2013년 6월 14일)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12) 首相官邸.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2013년 12월 10일)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3. 수출확대정책

3.1. 수출액 1조엔 목표

일본 정부는 ① 세계 요리계에서의 일본식재료의 활용 추진(Made FROM Japan), ② 일본의 '음식문화·음식산업'의 해외전개(Made BY Japan), ③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Made IN Japan) 등 세 방향의 대처를 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세계 식품시장을 점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13)]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추진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① 상대국이 추구하는 인증이나 기준에 대한 대응 등 수출 환경 정비(ENTER), ② 상품 유통의 확립 지원(ESTABLISH), ③ 상품 유통의 확대 지원(EXPAND)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14)] 또한 아베 총리가 내세운 농림수산물 수출액 1조 엔

표 3 농림수산물의 수출액 실적과 정부가 내건 목표액

품목	2012년 실적	2020년 목표	배율	수출전략 개요 등
가공식품	1,299억 엔	5,000억 엔	3.8배	목표액 5,000억 엔의 내역은 조미료류 1,600억 엔, 과자류·청량음료수 1,400억 엔, 레토르트식품 등 2,000억 엔임.
쌀·쌀 가공품	130억 엔	600억 엔	4,6배	정미만이 아닌 포장쌀밥, 쌀과자, 일본주 등 가공품 수출에 주력함.
청과물	80억 엔	250억 엔	3.1배	산지간 연계나 도매시장 활용 등에 의하여 일본산 청과의 다품목 주년 제공 실현을 목표로 함.
쇠고기	51억 엔	250억 엔	4.9배	고도의 위생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인증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함.
화훼	83억 엔	150억 엔	1.8배	수출의 역사가 짧아, 분재나 절화의 프로모션 실시함.
차	51억 엔	150억 엔	3.0배	다기나 화과자 등 일본음식이나 음식문화와 조화를 이룬 매매를 시행함.
임산물	123억 엔	250억 엔	2.0배	전략 중점국은 중국과 한국. 일본산 목재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과제임.
수산물	1,700억 엔	3,500억 엔	2.1배	원전사고에 의하여 수입규제 철폐를 위한 접촉이나 품질관리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함
합계	약 4,500억 엔	1조엔	2.2배	

자료: 農林水産省. 2013.「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平成25年8月29日 公表) 」.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13) 동 전략은 FROM, BY, IN 의 머리글자를 따서「FBI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農相 輸出拡大へ戦略披露 鍵は「FBI」」『日本農業新聞』2013.5.17.; 農林水産省.「特集 1 ニッポンの"おいしい"をもっと世界へ! 農林水産物と食品の輸出、最前線レポート」農林水産省. 44(9), 2013.9, pp.4-13) 。

14) ENTER, ESTABLISH, EXPAND の頭文字から、「3Es」と呼ばれている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参考資料) 」 (平成25年8月) (http://www.maff.go.jp/e/export/kikaku/pdf/souron.pdf))

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2013년 8월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의 확정판[15]을 공표하였다<표 3 참조>.

동 전략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림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하여 현상 분석이나 수출확대책을 정리하였다. 2012년 수출액이 1,299억 엔이었던 가공식품은 수출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에 의하여 2020년까지 수출액을 5,000억 엔으로 수출에 주력한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로서 원재료 국산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16] 또한 쇠고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등에 대응한 시설 정비나 '할랄(Ḥalāl)인증'[17] 취득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등으로 수출액을 약 5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쌀 및 쌀 가공품'의 목표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 130억 엔이 8년 후인 2020년에 600억 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율로 수출액이 늘리는 것으로 매년 20%을 초과하는 수출액 증액이 필요하다.[18]

3.2. 수출추진체제

농림수산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는 2003년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도하여 발족한 '농림수산 일본 브랜드 수출촉진 도도부현(都道府縣)협의회'가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19]가 설립되었다. 동 협의회는 농림수산단체와 경제단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관계부처 등 156명의 회원(2013년 11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민이 일체가 되어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20] 이 외에 각 지방 농업행정국 등이 사무국이 되어 지역수출촉진 협의회나 도도부현 단위의 수출촉진협의회도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5)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平成25年8月29日公表)」 (更新日：25年11月6日)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16) "加工品の原材料は国産に 食品輸出拡大「国別·品目別戦略」確定版」". 『日本農業新聞』 2013.8.31.

17)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18) 예를 들어, 매년 쌀과 쌀 가공품의 수출액이 21%씩 증가한다면 2016년에는 287.7억 엔, 2020년에는 597.3억 엔이 됨.

19)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等輸出促進全国協議会」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

20)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促進対策の概要」 (平成26年1月)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01.pdf).

3.3. 정부의 사업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수출의 확대 등 글로벌 「식품시장」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사업(217억 4,900만 엔 내)을 포함하고 있다.[21]

○ 수출전략실행사업(1억 5,200만 엔)

2014년의 신규 사업이다.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 하에 수출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전략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 수출배증프로젝트(17억 9,900만 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제휴 강화를 도모하면서 사업자 발굴에서 상담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조사 등도 실시한다. 수출배증프로젝트 가운데, 10억 200만 엔을 차지하는 '수출종합지원프로젝트'에서는 수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나 수출 프로모터(promoter)의 설치, 농림수산물·식품에 특화한 국내외에서의 상담회 실시, 국제식품 상품전시회에 출전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또한 9,700만 엔이 계상된 '수출확대추진 위탁사업'에서는 국가별의 마케팅 조사와 수입규제완화 활동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정비한다.

○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기반시설 정비 사업(1억 9,800만 엔)

식품산업이 글로벌화 전개 시 장벽이 되는 식품의 규격기준 등에 대한 대응이나 인재확보를 한다.

○ 수출 대응형 시설 정비(133억 9,000만 엔)

이슬람권에 적합한 할랄(Ḥalāl) 대응형 육류처리시설이나 청과물을 장기보존 가능하게 하는 저온저장 설 등의 정비, HACCP 기준을 만족시키는 화물 처리장 등을 구비한 고도위생관리형 어항(漁港)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일본음식 · 식문화 보급 추진 종합대책(11억 4,000만 엔)

2014년의 신규 사업이다. 요리학교나 해외급식 사업자 등과 제휴하여 메뉴 개발에 의한 일본산 식재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대처가 포함되어 있다.

---

21) 農林水産省.「平成26年度予算概算決定（輸出促進関連）」（平成25年12月）.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gaisann_kettei.pdf).

○ **기타**

이 외에 수출촉진을 위한 식물방역대책이나 가축위생종합대책, 2015년에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로의 정부출전위탁사업 등의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4.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

4.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하여 방사성 물질이 일본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동북에서 기타칸토(北關東)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에 규정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농수산물이 확인되어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와 동시에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원전사고 후 2년 반이 지나고 규제가 해제된 국가도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으로 41개 국가 및 지역에서서 규제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일본 농수산물 수입관련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2013년 12월 기준)

일본의 일부 식품에 한해 수입정지/기타 식품에 증명서 첨부 요구(5개국)
한국, 중국,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일본 전체 식품에 증명서 첨부 요구(14개국 및 지역)
인도네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라크,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일본 일부 식품 수입정지 또는 증명서 첨부 요구(14개국 및 지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 EU,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검사강화(8개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호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모리셔스
참고: 규제조치 완전해제(12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자료: 農林水産省.「諸外国·地域の規制措置」 (2013년 12월 12일 기준)
(http://www.maff.go.jp/j/export/e_info/pdf/kisei_all_131224.pdf).

또한 2013년 8월 밝혀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으로의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한국

이 9월부터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원전사고의 영향 등에 의하여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이 줄어든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22] 이것은 하나의 중대 사고가 판로의 유지 및 확대에 있어 지금까지 축적한 관계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식품관련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르는 원전사고 등이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큰 손실'이 62.4%, '약간의 손실'이 25.6%로 전체 약 90%가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회답하였다.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식품을 수출할 때 각국이 요청하는 산지나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 등 증명서를 국가가 일원화하여 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23] 종래에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증명서를 발행해 왔지만, 2011년의 발행 건수가 약 5만 7,000건에 이르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운용면에서도 통일성이 없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24]

4.2. 안전·품질관리 체제 정비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HACCP이나 ISO 규격,[25] GLOBAL G.A.P.[26]에 대한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정비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안전·품질관리와 관련한 일본 국내의 체제정비가 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대응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ACCP은 담당기관이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록 실무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수행하는 등 수속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다.

---

22) 日本貿易振興機構.「総論 2011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2』 2012, pp.2–18.
23) 農林水産省.「食品等に係る諸外国への輸出に関する証明書発行について」 (http://www.maff.go.jp/j/export/e_shoumei/index.html); "国が輸出証明書発行へ 円滑化、県の負担軽減".『日本農業新聞』 2013.2.4.
24) "放射性物質検査 輸出食品、国が証明書".『日本経済新聞』 2013.3.2.
25) 식품관련 규격으로서 ISO22000(식품안전매니지먼트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
26) 농산물생산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인증의 하나임. 유럽을 중심으로 111개국(2012년말 기준)에서 실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GAP란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로 '농업생산공정관리'로 번역됨. (農林水産省.「農業生産工程管理(GAP) に関する情報」(更新日:平成25年9月4日) (http://www.maff.go.jp/j/seisan/gizyutu/gap/index.html).

4.3. 산지간 보조의 온란

각 도도부현이 각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보조가 맞지 않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27] 해외 시장에서도 현별 및 산지별 상품이 경쟁을 하고 있어 일본 브랜드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정된 산지에서는 농산물의 연중공급이 어렵고, 한 번에 수출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수송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28] 타산지의 농산물도 취급하는 것에 의하여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연간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선행 사례도 있지만, 전국적인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농산물 물류 효율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항이나 공항까지 운송비용을 경감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4.4. 엔저 현상의 영향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엔시세가 주는 영향도 크다.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엔화 가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구입을 억제하는 움직임과 함께 향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29]

단,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에는 제동이 걸린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식품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에 있어서 엔화 상승의 영향은 '큰 손실'이라는 응답이 47.0%, '약간의 손실'이라는 응답이 34.2%로 약 80%의 기업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회답하였다.

5. 수출 확대를 위한 방책

5.1. 상대국의 특성 파악

해외에서는 농산물이 요구되는 형태가 국내 시장과 다른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저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큰 사이즈의 참마가 대만 시장에서는 수입되고

27) 浅川芳裕.“第3章 日本農業、大躍進へのシナリオ 農産物を「商品」として売り込むマーケティング”. 『TPPで日本は世界一の農業大国になる―ついに始まる大躍進の時代』 KKベストセラーズ, 2012, pp.145–147; 「」時事深層 点検アベノミクス 農産物輸出, 「倍増計画」の隘路」『日経ビジネス』 1720, 2013.12.16, pp.12–13.

28) “けいざい解読 農業再生輸出は切り札か 物流コスト抑制課題”. 『日本経済新聞』 2013.4.7.

29) “円安の影響 農産物輸入を抑制 輸出増期待も「まだ先」”. 『日本農業新聞』 2013.1.31.

있다. 잉여 농산물을 수출로 전환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닌 수출처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 농산물을 수출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성공 여부가 상대국의 경기에 좌우되기 쉽고, 시장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포화 상태가 될 위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수출되는 쌀은 해외 시장에서 극히 고가로 취급되고 있으며 품질의 우위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수량이 급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30]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며,[31] 어떻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 수출상대국의 검역 체제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인정되는 농산물은 사과, 배, 차, 쌀 등 4개 품목만이며, 기타 농산물은 식물검역 제도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32] 또한 이슬람권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할랄(Ḥalāl)인증을 취득해야하는 등 대응이 요구된다.

5.2. 네덜란드와 덴마크 모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가 세계시장을 지향하며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성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재배나 식물공장에서의 생산 등 시설형 농업을 특화하고, IT 기술 등에 의한 생산관리나 유통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으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33] 덴마크는 국토면적이 규슈(九州)와 거의 같고 평탄한 농지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농업이 경영되고 있다. 1개 경영체당의 평균 농지면적은 62.9ha(2010년 기준)[34]로, 생산성이 극히 높은 편이다.[35] 또한 축산업과 식품제조업과의 제휴에 의하여 치즈, 베이컨이나 햄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공통점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무역이 왕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

30) 藤野信之. "米輸出の動向と展望". 『農林金融』 63(12), 2010.12, pp.730-743.
31) 下渡敏治. "Ⅲ.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 『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2013, pp.51-54.
32) 植物防疫所. 「諸外国に植物等を輸出する場合の検疫条件一覧(早見表): 物編」 (平成25年10月17日 기준) (http://www.maff.go.jp/pps/j/search/pdf/ex_quickhelp201310.pdf); 輸出障壁は関税より植物検疫 安全認証の標準化にも注意を". 『週刊ダイヤモンド』 101(14), 2013.4.13, p.53.
33) 貞清栄子. "農業、輸出産業化の可能性—欧州事例に学ぶ". 『月刊金融ジャーナル』 54(2), 2013.2, pp.64-67; 「経済地球便 オランダ野菜 科学で耕す センサーで作物監視 種をX線検査」 『読売新聞』 2013.4.28.
34) 일본의 1개 경영체당 평균 농지면적은 2012년에 2.32ha이었음.
35) 農林水産省. 「海外農業情報 デンマークの農林水産業概況」 (更新日 : 2013年7月29日)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den.html).

본이 이 두 개 국가를 모델로 할 경우 과제도 있다. 네덜란드는 수출처의 80% 이상이 EU권내로 일본과 비교하여 수출에 대한 장벽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식물공장 등 시설형 농업은 기반시설 정비 등 초기비용 규모에서부터 도입처가 한정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덴마크와 같은 규모의 이익(scale merit)을 살리는 농업을 목표로 할 경우, 농지 면적 집약 등 새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5.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활용

네덜란드와 같은 수출형의 농업국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활용하고,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6] 또한 고소득층이 많은 TPP 교섭 참가국은 잠재적인 수요를 개척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 단, 현시점에서 TPP 교섭 참가국에의 수출액은 전체의 4분의 1정도에 머무르고 있다<표 1 참조>. 농산물 수출이 유망한 수출처 가운데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TPP와 수출 확대와의 관계는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도 있다.[37]

6. 맺음말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으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일본식(和食)'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는 수출 확대의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목표 실현을 위하여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의 수출액을 대폭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자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결부시키는 소위 6차 산업화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쌀이나 쌀 가공품의 수출 확대의 향방은 향후 쌀 정책의 동향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정부는 농업·농촌전체 소득을 향후 10년간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3년 12월에 종합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플랜'[38]에서는 ① 수요 프런티

36) 川島博之. "TPPを機に'選択と集中' 日本はオランダ型農業輸出国になれる". 『エコノミスト』 89(12), 2011.3.8, pp.97–99.
37) 田代洋一. "攻めの農業で日本は生き残れるか?". 『農業と経済』 77(5)臨時増刊号, 2011.5, pp.122–130; "核心 TPP 交渉参加へ懸念 描けぬ攻めの農業". 『東京新聞』 2013.4.4.
38)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平成25年12月10日)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어의 확대(국내외의 수요확대), ② 수요와 공급을 잡는 가치사슬 구축(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향상), ③ 다면적 기능의 유지 및 발휘, ④ 생산 현장의 강화 등을 4개의 기둥으로 하여 정책을 재구축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출의 촉진은 ① 수요 프런티어의 확대의 중심이 되는 대처이다.

일본 농업이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소득 증가에 실질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인지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省. 2013.3.25.「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 (平成24年) 確定値」.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kyo_12.pdf).

_____. 2014.「農産物の輸出に関する資料」. 農林水産省.

_____. 2012. 8.「プレスリリース 米国向け牛肉の輸出再開について」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20803.html).

_____. 2006.「21世紀新農政2006」(平成18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6.pdf).

_____. 2007.「21世紀新農政2007」(平成19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7.pdf).

_____. 2010.「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平成22年3月30日 閣議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eikaku/k_aratana/pdf/kihon_keikaku_22.pdf).

_____. 2013.8.「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参考資料)」.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pdf/souron.pdf)

_____. 2013.8.29.「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_____.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

_____. 2014.1.「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促進対策の概要」.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01.pdf).

_____. 2013.12.「平成26年度予算概算決定 (輸出促進関連)」.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gaisann_kettei.pdf).

_____.「食品等に係る諸外国への輸出に関する証明書発行について」.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export/e_shoumei/index.html)

_____. 2013.9.4.「農業生産工程管理(GAP)に関する情報」.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eisan/gizyutu/gap/index.html).

_____. 2013.7.29.「海外農業情報 デンマークの農林水産業概況」.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den.html).
_____. 2013.9. "特集1 ニッポンの"おいしい"をもっと世界へ！ 農林水産物と食品の輸出、最前線レポート". 農林水産省.
首相官邸. 2013.6.13.「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_____. 2013.12.10.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_____. 2013.12.10.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日本貿易振興機構. 2012.「総論 2011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ジェトロ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2』. 日本貿易振興機構.
_____. 2013. "総論 2012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と輸出促進への取組み". 『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3』. 日本貿易振興機構.
長谷川直行. 2013.1. "日本食品の輸出」日本酒、日本茶が伸長". 『ジェトロセンサー』 63(746). 日本貿易振興機構.
_____. 2012.10.「今なぜ農林水産物·食品輸出か？—輸出を巡る状況とジェトロの支援」『農家の友』 64(10). 北海道農業改良普及協会.
下渡敏治. 2013. "Ⅲ. 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 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
_____. 2011.1. "今や待ったなし農産物輸出戦略の構築".『AFC フォーラム』 58(10). 農林水産事業 AFCフォーラム.
浅川芳裕. 2012.「第3章 日本農業, 大躍進へのシナリオ 農産物を「商品」として売り込むマーケティング」『TPPで日本は世界一の農業大国になる—ついに始まる大躍進の時代』. KKベストセラーズ.
藤野信之. 2010.12.「米輸出の動向と展望」『農林金融』 63(12). 農林中金総合研究所.
下渡敏治. 2013.「Ⅲ.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
植物防疫所. 2013.10.17.「諸外国に植物等を輸出する場合の検疫条件一覧(早見表)：貨物編」. 植物防疫所. (http://www.maff.go.jp/pps/j/search/pdf/ex_quickhelp201310.pdf).
貞清栄子. 2013.2.「農業、輸出産業化の可能性—欧州事例に学ぶ」『月刊金融ジャーナル』 54(2). 日本金融通信社.
川島博之. 2011.3.8.「TPP を機に"選択と集中" 日本はオランダ型農業輸出国になれる」

『エコノミスト』89(12). 毎日新聞社.
田代洋一. 2011.5.「攻めの農業で日本は生き残れるか?」『農業と経済』77(5) 臨時増刊号. 昭和堂.
第165回国会衆議院会議録第3号 平成18年9月29日 p.2.
ダイヤモンド社. 2013.4.13. “輸出障壁は関税より植物検疫 安全認証の標準化にも注意を” 『週刊ダイヤモンド』101(14). ダイヤモンド社.
読売新聞. 2013.4.28. “経済地球便 オランダ野菜 科学で耕す センサーで作物監視 種をX線検査」. 読売新聞.
日経ビジネス. 2013.12.16. “時事深層 点検アベノミクス 農産物輸出,「倍増計画」の隘路”. 日経ビジネス 1720.
日本経済新聞. 2013.4.7. “けいざい解読 農業再生輸出は切り札か 物流コスト抑制課題”. 日本経済新聞.
日本農業新聞. 2013.1.31. “円安の影響 農産物輸入を抑制 輸出増期待も「まだ先」”. 日本農業新聞.
日本農業新聞. 2013.2.4. “国が輸出証明書発行へ円滑化、県の負担軽減”. 日本農業新聞.
日本経済新聞. 2013.3.2. “放射性物質検査 輸出食品、国が証明書”. 日本経済新聞.
日本農業新聞. 2013.8.31. “加工品の原材料は国産に食品輸出拡大「国別·品目別戦略」確定版」”. 日本農業新聞.
日本農業新聞. 2012.12.15. “農産物輸出食用、農業産出額の0.2%過大な期待は禁物”. 日本農業新聞.
朝日新聞. 2013.1.10. “九州の「農」力4アジア展開輸出課題山積み”. 朝日新聞(西部本社版).
日本農業新聞. 2013.5.17. “農相 輸出拡大へ戦略披露 鍵は「FBI」”. 日本農業新聞.